

고려시대 개경 행정구역의 편제와 그 이념

金昌賢*

I. 머리말	III. 부·방의 편제와 그 원리
II. 部·坊에 대한 기록과 연구방향	IV. 맺음말

I. 머리말

행정구역은 국가가 사람들을 파악하는 단위이면서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의 단위이다. 고려의 행정구역은 수도인 개경, 副都인 서경·동경·남경의 三京, 그리고 5道와 兩界, 州·府·郡·縣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국왕과 중앙정부가 위치한 수도 개경은 전국의 중심이었으며, 부도인 삼경은 지방 사회의 중심이었다.

고려의 수도 개경은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물산이 집합하는 곳이었으며, 외국의 사신과 상인들이 몰려드는 외교 내지 무역의 주요 무대였으니, 개경인들은 물론 지방 사람들, 외국인들의 공간이기도 하였다. 수도 개경의 행정구획은 5부와 坊·리로 구성되어 있었다. 각 부 안에는 여러 방이, 각 방 안에는 여러 리가 존재하였다. 개경인들은 5부와 방·리의 구획에 따라 거주하면서 일상 생활을 영위하였다.

이러한 위상을 지닌 개경의 5부와 방·리의 구조를 밝히는 일은 개경인들의

* 한경대학교 강사, 한국사

생활사를 복원하는 데, 나아가 고려사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개경의 5부 방·리에 대한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²⁾ 특히 5부와 방·리를 이해하는 기초적인 작업인 그것의 구획에 대한 연구가 그리 진척이 없는데 본고는 이 문제를 부·방에 한정해 중점적으로 다루려 한다. 그 과정에서 개경의 도시계획에 깔린 이념도 추구해 나가려 한다.

II. 部·坊에 대한 기록과 연구방향

개경의 행정구역인 5부와 坊·리는 태조 2년에 정해지고, 성종 6년에 다시 정해지고, 현종 15년에 다시 정해졌다.³⁾ 현종 15년의 5부 방리 정비는 현종 즉위년~현종 20년에 걸친 나성(외성) 축성⁴⁾과 맞물려 있었다. 5부와 방리가 정해지는 현종 15년이면 나성 공사가 본 궤도에 올라 상당히 진척된 상태라 나성의 기본적인 범위가 거의 드러난 상태여서 나성이 완성되기 이전에 5부와 방리의 구역이 확정될 수 있었던 것이다. 나성문들의 위치와 명칭은 5部 및 坊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데, 나성이 완성되는 현종 20년까지 확정되었겠지만 5부와 방이 확정되는 현종 15년 정도면 대부분 결정되었지 않았나 싶다.

개경의 5부와 방리의 내용은 『고려사』 권56 지리지 1 ‘왕경개성부’조에, 현종 15년 京城의 五부와 坊里를 다시 정했다고 한 다음 세주 형태로 실려 있다. 여기에는 대개 현종 15년 정한 내용이 실렸다고 여겨지지만 지리지의 성격상 훗날의 인식도 일정하게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지리지 편찬자들이 현종 15년 정한

2) 개경의 5부 방·리와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朴龍雲, 『고려시대 開京 연구』, 일지사(1996)

細野涉, 「高麗時代の開城—羅城城門の比定を中心とする復元試案」, 『朝鮮學報』 제166집 (1998)

장지연, 「개경과 한양의 도성구성 비교」, 『서울학연구』 15(2000)

홍영의, 「고려전기 개경의 오부방리(五部坊里) 구획과 영역」, 『역사와 현실』 제8호(2000)

서성호, 「고려시기 개경의 시장과 주거」, 『역사와 현실』 제8호(2000)

3) 『고려사』 권56 지리지 1 왕경개성부.

4) 『고려사』 권4 현종 즉위년 3월, 『고려사』 권5 현종 20년 8월, 『고려사』 권56 지리지 1 왕경개성부.

내용을 완성된 모습으로 소개하면서도 그 이후의 변화를 반영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것이다.

세주에 실린 오부와 방리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번호는 기재된 순서에 따라 필자가 편의상 붙인 것이다.

東部: 坊 7, 里 70

①安定坊, ②奉香坊, ③令昌坊, ④松令坊, ⑤楊堤坊, ⑥倉令坊, ⑦弘仁坊

南部: 坊 5, 里 71

①德水坊, ②德豊坊, ③安興坊, ④德山坊, ⑤安申坊

西部: 坊 5, 里 81

①森松坊, ②五正坊, ③乾福坊, ④鎮安坊, ⑤香川坊

北部: 坊 10, 里 47

①正元坊, ②法王坊, ③興國坊, ④五冠坊, ⑤慈雲坊, ⑥王輪坊, ⑦堤上坊,

⑧舍乃坊, ⑨師子岩坊, ⑩內天王坊

中部: 坊 8, 里 75

①南溪坊, ②興元坊, ③弘道坊, ④罵溪坊, ⑤由岩坊, ⑥變羊坊, ⑦廣德坊,

⑧星化坊

모두 5부 35방 344리였다. 35방에다가 황성(궁성 포함)을 더하면 36이 되는데 신선이 거쳐하는 이상향인 36洞天⁵⁾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리되면 개경은 신선 세계였던 셈이다. 북부의 法王坊, 興國坊, 慈雲坊, 王輪坊, 內天王坊, 舍乃坊은 태조 때 창건된 법왕사, 흥국사, 자운사, 왕륜사, 내천왕사, 舍那院과 차례대로 관련되어 그 명칭이 생겨났다.⁶⁾ 이 가운데 법왕방, 흥국방, 왕륜방은 법왕사, 흥국사, 왕륜사의 위치 비정이 가능함에 따라 대략 그 영역이 드러났다. 자운방은 慈雲寺를 慈恩寺와 동일시하여 황성의 동쪽에 위치를 비정하는 경우가 있는데⁷⁾

5) 商務印書館, 『辭源』水部 洞天, 『동국이상국집』 권23 泰齋記 참조

6) 박용운은 앞의 책 105쪽에서 법왕방, 흥국방, 왕륜방, 내천왕방이 사원의 이름에서 유래하였음을 지적하였으며, 홍영의는 앞의 논문 50 쪽에서 이들에다 자운방과 舍乃坊을 추가하여 태조대부터 창건한 사찰에서 그 명칭이 정해졌다고 하였다. 법왕사, 자운사, 왕륜사 사나원은 태조 2년에, 흥국사는 태조 7년에 창건되었다. 『삼국유사』 왕력. 내천왕사는 태조 19년에 창건되었다. 『고려사』 권2 태조 19년 12월

확실치 않아, 내천왕방 및 舍乃坊과 함께 그 위치를 찾아보아야 한다. 舍乃坊은 뒤에 언급하듯이 ‘舍乃’가 ‘舍那’의 약자로 판단되어 ‘사나방’으로 표기하고자 한다.⁸⁾

오관방, 유암방, 사자암방은 지형과 관련됨이 언급되었다. 오관방은 五冠山과 관련하여 붙여진 방명이었다.⁹⁾ 오관산은 송악산의 동북 내지 북동에 위치하므로¹⁰⁾ 오관방은 그 방향에 자리잡았으리라 짐작된다. 유암방은 황성의 남쪽 유암산 부근에 위치하였으며¹¹⁾, 사자암방은 師子岩이 영평문 길에 위치한 것으로 보아 황성 밖 북쪽 송악산 남쪽 기슭에 위치하였다.¹²⁾

駕溪坊은 액계와 관련시키는 견해¹³⁾ 및 나성의 액계문과 관련시키는 견해¹⁴⁾가 있는데 액계방이든 액계문이든 모두 액계와 관련된다.¹⁵⁾ 廣德坊은 나성의 광덕문과 관련시키는 견해¹⁶⁾ 및 광덕산과 관련시키는 견해¹⁷⁾가 있지만 타당하지 않다. 令昌坊, 安定坊, 弘仁坊, 德山坊, 德豐坊, 乾福坊은 각각 나성의 영창문, 안정문, 흥인문, 덕산문, 덕풍문, 건복문과 관련됨이 언급되었다.¹⁸⁾ 五正坊은 나성의 선의

7) 前間恭作, 「開京宮殿簿」, 『朝鮮學報』 제26 집(1963), 5 쪽 지도 慈恩寺는 笏軍橋 옆에 있었다. 노교교는 광화문 동쪽에 위치한 兵部橋의 동쪽에 있었다 『중경지』 권6 교량 및 사찰 참조

8) ‘乃’는 15세기의 ‘나’에 해당된다고 한다. 李丞宰, 『高麗時代의 吏讀』, 태학사(1992), 106 쪽 이는 고려 때 ‘乃’가 ‘那’의 약자로 사용되어도 무리가 없었음을 말해준다.

9) 박용운, 앞의 책, 105쪽.

10) 오관산의 위치는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2 장단도호부 불우 흥성사 참조

11) 홍영의, 앞의 논문, 49쪽 참조.

12) 『고려사』 권55 오행지 3 土 명종 18년 7월 참조 前間恭作은 사자암방을 영평문 안에 위치한 것으로 표시하였는데(앞의 논문, 5쪽 지도), 필자는 그 자리보다 북쪽에 비정한다. 뒤에 소개하는 고유섭의 글에 따르면 영평문은 속칭 도찰현에 위치하였다.

13) 박용운, 앞의 책, 105쪽.

14) 신안식, 「高麗時代 開京의 羅城」, 『명지사론』 11·12합집(2000), 201쪽. 홍영의, 앞의 논문, 49·50쪽.

15) 細野涉, 앞의 논문, 51쪽 참조.

16) 前間恭作, 앞의 논문 지도 및 홍영의, 앞의 논문, 49·50쪽. 光德門을 廣德門으로, 廣德坊을 光德坊으로 잘못 파악한 데에서 비롯된 듯하다.

17) 박용운, 앞의 책, 105쪽.

18) 細野涉, 앞의 논문, 47~54쪽 및 신안식, 앞의 논문, 199~202쪽 및 홍영의, 앞의 논문, 49~50쪽. 안정방, 흥인방이 안정문, 흥인문과 관련됨은 박용운이 앞의 책, 106쪽에서 지적

문이 午正門으로 불린다는 데에서 선의문 안쪽에 비정되었다.¹⁹⁾

이러한 연구성과들은 개경의 행정구역을 이해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준다. 하지만 전체적인 모습을 그려보기 힘들며, 세부적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곧 막히게 된다. 이를 해결할 실마리로서, 태조가 『義易』의 ‘龍飛乾’에 부합하여 創業垂統하고, 『周書』의 ‘龜食洛’을 체현하여 나라를 세우고 도읍을 설치하였으며 궁실을 이름은 「斯干」을 본받고 문을 여러 겹으로 설치함은 「豫」에서 취했다는 기록²⁰⁾이 주목된다. 왕건은 『주역』의 건괘에 부합해 창업하고 『주서』(『서경』의 부분) 落書 즉 洪範을 체현해 나라와 도읍을 경영하고, 『시경』 小雅 「斯干」 편을 본받아 궁실을, 『주역』 和樂의 「豫」 괘와 豫防의 「既濟」 괘에서 뜻을 취해 여러 문들을 건축하였던 것이다.²¹⁾ 이는 건괘 등 『주역』의 여러 괘, 홍범구주 등 『서경』의 내용, 「사간」 편 등 『시경』의 내용이 궁실, 성문, 행정구역 등 개경의 도시계획에 기본이념을 제공하였음을 말해준다. 『주역』은 음양을 근본으로 하고, 『서경』 洪範의 九疇 중 첫째가 오행이니 음양과 오행의 원리가 개경의 도시계획에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또한 고려가 수도 행정구역의 큰 단위를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의 五部로 편제한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고려는 고구려·백제의 수도 5부 및 신라(통일신라 포함)의 수도 6부를 참작한 위에 五方の 관념을 활용해 수도 5부를 만들었다고 여겨진다.²²⁾ 동서남북의 四方과 그것에 중앙을 더한 五方은 음양오행 및 四時

한 바 있다.

- 19) 박용운, 앞의 책, 22·98·106쪽 참조 조선시대에 개성 외성 나성이 존재 가치를 상실함에 따라 오정방의 선의문도 오정문으로 속칭되어 갔다고 여겨진다. 단, 午正門은 五正門의 착오로 판단된다.
- 20) 『동문선』 권108 李百順의 保定門 상량문
- 21) 왕건의 건괘 적용은 연호가 天授이고, 정전이 天德殿인 데에 잘 나타나 있다. 『고려사』 권1 태조 원년 6월·권2 태조 18년 12월 참조 주역은 伏羲 문왕 주공 공자를 거쳐 완성되었으며, 洪範은 禹가 落書를 본받아 만들고 箕子가 推衍·增益했다고 한다. 斯干은 궁실의 완성을 노래한 시이다. ‘豫’는 震上坤下(上動下順)의 「豫」 괘에서 인심의 安和悅樂(和樂)을 상징하고, 「既濟」 괘에서 “象曰 水在火上 既濟 君子 以思患而豫防之”라는 구절처럼 환란에 대비해 豫防함을 뜻한다.
- 22) 삼국의 部는 族的인 성격이 강했지만 행정조직으로 전환되어 갔으며, 통일신라의 部는 행정구획으로서만 기능하였다고 한다. 盧泰敦의 「三國時代の ‘部’ 에 關한 研究(『한국사론』 2, 서울대, 1975) 및 한길사 1994 『한국사』 3(고대사회에서 중세사회로1) 「제2부 지

의 중요한 요소이다. 오행에서 木은 동쪽과 봄을, 火는 남쪽과 여름을, 金은 서쪽과 가을을, 水는 북쪽과 겨울을 상징한다. 그리고 土는 중앙을 상징하고 사계절마다 들어 있다. 『고려사』 권53 오행지 1 서문에 “하늘에 五運이 있고, 땅에는 五材가 있다²³⁾고 하였는데, ‘오운’은 五星을, ‘오재’는 五行을 가리킨다²⁴⁾ 오성은 오행의 精이니 오행의 영역에 포함되며, 사물은 하늘에 속하든 땅에 속하든 음양과 오행의 작용으로 설명된다.²⁵⁾ 사시 즉 계절도 음양오행의 작용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五方に 바탕한 五部는 오행과 사시가 순환하는 원리에 따라 편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동쪽의 동부는 木의 작용에 따라 전개되는 봄을, 남쪽의 남부는 火의 작용에 따라 전개되는 여름을, 서쪽의 서부는 金의 작용에 따라 전개되는 가을을, 북쪽의 북부는 水의 작용에 따라 전개되는 겨울을 상징하였다. 중앙의 중부는 土의 작용에 따라 다른 4개의 部를 조절하였다.

四方은 가장 기본적인 방위인데 이것을 2배로 확장하면 八方으로 늘어난다. 팔방은 『주역』 문왕팔괘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데 艮은 동북에, 震은 정동에, 巽은 동남에, 離는 정남에, 坤은 서남에, 兌는 정서에, 乾은 서북에, 坎은 정북에 해당한다. 사방, 오방, 팔방의 방위개념은 불교의 세계관과 연결되었으므로 불교가 지배한 고려사회에 무리 없이 수용되었다. 사방을 수호하는 사천왕, 五方神을 모시는 문두루도량, 팔방에 상하를 더한十方(十方)의 세계, 팔방의 天에다 梵天·地天·日天·月天을 더한 12天 관념 등²⁶⁾이 음양오행설과 관련을 맺는다. 방위를

배체제와 영역의 발전) 참조. 고려는 통일신라 체도를 많이 참고하였으므로 경주의 6부를 본보기로 삼았을 터이지만 오행을 중시했으므로 5부제를 채택했다고 여겨진다. 도성을 部로 구별하는 것은 중국에는 없는 우리 삼국시대에서 비롯한 고유한 방식이었음을 장지연이 지적한 바 있다. 앞의 논문, 71쪽.

23) “天有五運 地有五材 其用不窮 人之生也 具爲五性 著爲五事 修之則吉 不修則凶”

24) 五材가 오행을 가리키는 商務印書館 편 『辭源』 二部 五材 참조. 五運은 하늘을 운행하는 다섯 가지 물체이니 五星으로 판단된다.

25) “文曜麗乎天 其動者有七 日月五星是也 日者 陽精之宗 月者陰精之宗 五星 五行之精 衆星列布 體生於地 精成於天 列居錯峙 各有所屬 在野象物 在朝象官 在人象事”(『사기』 권27 天官書 제5 서두의 「正義」)라는 구절이 참고된다

26) 사천왕, 시왕, 십이천에 대해서는 『한국불교대사전』(명문당 1982) 참조. 문두루도량에 대해서는 『삼국유사』 권2 文虎王 法敏 참조. 당 군대가 신라를 공격하려 하자 明朗法師는 낭산의 남쪽 神遊林에 四天王寺를 짓고 도량을 개설하면 물리칠 수 있다고 하였다. 명랑은 彩帛을 이용해 임시로 절을 짓고 풀로 五方神像을 만들어 文豆婁 비법을 행해 풍랑을

팔방에서 좀더 확대하면 십이방인데, 이는 12支(子~亥)를 이용한 것이다. 불교도 약사여래의 12神將(12神明王)을 12지에 배당하여 하루의 12時를 보호하도록 함으로써 12방 관념을 수용하였다. 8방과 12방에다 10干(甲~癸)을 더하면 24방위가 된다.²⁷⁾

5부는 5방위(4방위와 중앙)와 호응하지만 4방위를 세부적으로 확대한 8방위, 12방위, 24방위와도 관련을 맺는다. 이는 각 부에 속한 坊·里²⁸⁾도 그러한 방위 구조의 영향 아래에 있었음을 시사한다. 작은 단위인 里는 위치나 명칭이 방위와 호응하도록 짜여지기는 어려웠을 것이지만, 중간 단위인 坊은 방위 내지 음양오행이 반영되어 짜여졌을 여지가 많았다.

『보한집』 하권에 진양공 최우가 종실의 諸王에게 연회를 베풀고 八洞樂을 진열시켜 관람하였다고 되어 있다. 그 세주에는 舊京 즉 개경의 諸坊이 十二洞이라 불렀는데 각기 里樂이 있었으며, 천도하면서 모두 없어졌다가 진양공이 八洞을 만들어 그 음악을 열람하였다고 되어 있다. 『고려사』에는 고종 32년 2월에 최이(최우)가 종실 司空 이상 및 宰樞에게 연회를 베풀고 伎樂과 百戲를 벌였는데 八坊廂 工人 1,350여 명이 음악을 연주하였다고 한다.²⁹⁾

일으켜 당의 배를 모두 침몰시킨 후 절을 세워 四天王寺라 했다. 이는 사천왕 신앙이 사방 내지 오방과 관련됨을 시사한다.

- 27) $8+12+10=30$ 이 되지만 8방과 12방에서 정동의 震과 巽, 정남의 離와 午, 정서의 兌와 酉, 정북의 坎과 子가 겹치므로 중복계산을 하지 않아야 되고, 10干 중 戊·己는 중앙에 배정되므로 제외하면 24방위가 도출된다. 8방, 12방, 24방의 구조에 대해서는 최창조, 『한국의 풍수사상』, 민음사(1984), 154~164쪽 참조.
- 28) 고려에서는 ‘왕경개성부조’에 나타나듯이 坊이 중간단위이고 里는 그 아래 작은 단위였다. 중국에서는 里와 坊이 같은 단위였다. 『古代都城』, 요녕사범대학출판사, 1996, 55쪽. 長安城은 주작대로 서쪽의 萬年縣과 동쪽의 長安縣 밑에 각각 54개 坊, 도합 108개 坊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董鑾泓 編, 成周鐸 譯註, 『中國都城發達史』, 학연문화사(1993), 70쪽. 신라의 경우 『삼국사기』 권34 雜志 3 地理 1에는 王都가 35里 6部로, 『삼국유사』 권1 紀異 1 辰韓에는 신라 전성기 京中에 1,360坊 55里로, 『삼국유사』 권5 避隱 8 念佛師에는 城中 360坊으로 기재되어 있어 里가 坊보다 큰 단위로 나타나 혼란스럽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고찰은 李基東, 『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郎徒』, 일조각(1984), 191~193쪽이 참고된다.
- 29) 『고려사』 권129 최충헌전 부속 최이전. 송의 개봉은 80여개 坊이 8廂으로 나뉘어 관리되었다. 成周鐸 역주, 앞의 책, 106쪽. 고려시절의 坊廂이 송의 廂과 어떠한 연관이 있었는지 알 수 없다.

이를 통해 개경에는 12동 악대가, 강도에는 8동 내지 8坊廂 악대가 조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개경의 諸坊이 12洞이라 불렀다거나 강도의 예로 보거나 개경의 12동 음악도 12坊 음악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기록들은 개경에 坊이 12개만 있다는 것도 아니고 강도에 坊이 8개만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악대가 그렇게 조직되었음을 의미한다. 개경 35坊에 악대는 12개 있으니 대략 3개의 坊에 1개의 악대가 존재했던 셈이다. 개경의 12동 내지 12坊 음악은 12방위의 관념에서, 그것이 전시체제상 축소된 강도의 8동 내지 8坊 음악은 8방위의 관념에서 비롯되었다고 여겨진다. 이는 개경의 坊들이 12방위는 물론 4방위, 8방위, 24방위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음양오행이나 계절의 순환과 호응하도록 짜여졌음을 시사한다.

『고려사』 권83 병지 3 위숙군조와 권56 지리지 1 왕경개성부조에는 각각 25개의 나성문들이 실려 있다. 개경의 행정구획 부·방은 영창문 안의 영창방, 홍인문 안의 홍인방, 덕산문 안의 덕산방, 건복문 안의 건복방 등의 예처럼 외성인 나성의 문들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었다. 25개 나성문 가운데 승인문·장패문·선의문은 고유섭과 전통철의 비정이, 안화문·태안문·광덕문·영평문은 고유섭의 비정이, 안정문·홍인문·회빈문은 전통철의 비정이, 자안문·성도문·영창문·덕풍문·영동문·선계문·앵계문·선암문·산예문은 細野涉의 비정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³⁰⁾ 선기문, 덕산문, 창신문, 보태문, 건복문(건양문), 통덕문(연양문) 자리는 필자가 판단해 비정하였다.³¹⁾

30) 高裕燮의 「개경의 성곽」·「송도고적도(부록)」 『松都의 古蹟』(열화당, 1977), 전통철의 「고려의 수도 개성성에 대한 연구(1)(2)」 『역사과학』 2·3(1980), 細野涉의 앞의 논문 참조 細野涉은 지리지 왕경개성부조에 실린 나성문들이 시계방향으로 기재되었다고 보았다. 이는 타당한 지적이지만 지리지 편찬자들이 오류를 범했을 가능성도 무시해서는 안된다. 위숙군조의 豊德門, 狻猊門, 乾陽門은 왕경개성부조의 德豊門, 狻猊門, 乾福門과 차례대로 동일한 문으로 판단되며, 위숙군조의 延陽門 또한 왕경개성부조의 通德門과 동일한 문으로 여겨진다. 김창현, 「고려 개경의 羅城門과 皇城門」 『역사학보』 제173집(2002), 35쪽 참조

31) 宣旗門은 『고려도경』 권3 國城에 동북문으로 기재되었는데, 『사기』 권27 天官書 5 ‘東宮蒼龍’에 旗星이 동북에 위치한다고 기재된 점이 그것을 뒷받침한다 德山門은 德岩과 관련된 명칭으로 여겨진다. 영평문, 건복문(건양문), 통덕문(연양문)은 황성 서벽의 북쪽 끝에서 자안문에 이르는 나성에 설치된 문임을 밝힌 적이 있다. 김창현, 앞의 논문, 39~42쪽 및 59쪽. 단, 영평문이 도찰현에 있었다는 고유섭의 설을 받아들이고 그 북쪽에 건복문(건양문)을 배치하고 싶다. 『고려사』 지리지 왕경개성부조에서 서문들의 일부가 광덕

이를 종합해 시계방향으로 배열하면, 북문인 통덕문(연양문), 자안문, 안화문 / 동문인 성도문, 영창문, 선기문, 안정문, 승인문, 흥인문 / 남문인 덕산문, 장패문, 덕풍문, 영동문, 회빈문, 선계문, 태안문, 앵계문 / 서문인 선암문, 광덕문, 창신문, 보태문, 선의문, 산예문, (나성과 겹치는 황성의 서문), 영평문, 건복문(건양문) 순이다. 이 나성문들을 북한의 발굴조사를 기초로 한 전룡철의 지도에 표시된 나성문터 위에 필자가 표시한 지도가 <부록> ‘개경 나성문과 부·방 이다’³²⁾

그러면 개경 5부와 35방의 구획을 기존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하면서 방위(방향), 음양오행, 계절의 순환 등에 유의해 총체적으로 들여다보는 시도를 해 보기로 한다. 지형이나 중요시설물과 관련해 방명이 지어지는 경우가 꽤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하겠지만, 『고려사』 지리지 왕경개성부조에 실린 방들이 5부 안에서 일정한 원칙 하에 기재되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 기재순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III. 부·방의 편제와 그 원리

동부에는 방이 7개 있었다. 安定坊은, 이성계의 신하시절 집으로 그가 죽은 후 영정이 모셔진 목청전이 승인문 안의 안정방에 있다는 기록에서³³⁾ 그 영역을 짐작할 수 있다. 목청전의 유적은 승인문으로 가는 대로의 바로 북쪽 가까이에 남아 있다.³⁴⁾ 안정방의 구역은 승인문과 안정문 주변이라 판단된다. 안정방은 안정문을 통해 부흥산 기슭의 대묘(태묘)와 연결되었으니³⁵⁾, 그 명칭이 천둥 벼락이

문, 건복문, 창신문, 보태문, 선의문 순으로 배열되었는데 이 중 건복문이 황성 너머에 배치되므로 창신문, 보태문이 시계방향에 따라 광덕문과 선의문 사이에 위치하게 된다

32) 전룡철, 앞의 논문, 지도에는 나성문 25개 중에 수문과 황성문을 제외하고 24개 문 자리가 표시되어 있다. 필자는 나성문들의 방위(방향)를 정하고 나성문들 중 드러나지 않은 나머지 한 자리를 통덕문(연양문)으로 보고 그 자리를 비정한 바 있다. 김창협, 앞의 논문, 32~38쪽 및 59쪽. 개경의 산천 모습에 대해서는 전룡철의 지도, 『중경지』 「중경성내도」, 국립지리원 5만분의 1 개성지형도, 이병도의 『高麗時代의 研究』, 아세아문화사(1980), 90~97쪽 참조

33) 『세종실록』 지리지 구도개성유후사.

34) 고유섭, 앞의 책, 부록 지도

치더라도 종묘 제사에서 정성과 공경을 다하면 ‘安而不自失’ 한다는 『주역』 震 괘의 「傳」과 관련된다고 여겨진다. 물론 선대 왕들의 영원한 안정 안식과 그들의 도움으로 왕실 및 국가가 안정되기를 기원하는 뜻도 담겨 있었을 것이다.

동부에서 가장 북쪽에 속한 승昌坊은 성도문과 영창문을 끼고 있었는데, 정식 표현은 靈昌坊이었을 것이며,³⁶⁾ 영창문과 더불어 오관산 靈通寺와 관련되었다고 여겨진다. 오관산은 왕건의 선대가 발원한 곳으로 영통사는 그것을 기념해 세워진 절이었다.³⁷⁾ 영통사는 왕이 선대의 영혼과 교감하는 곳이었으며, 영창문은 그러한 영통사로 통하는 문이었고 영창방은 그러한 방향에 자리잡은 방이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동북 立春에 해당하는 영창방은 영창문과 함께 風師와도 관련을 맺었다.³⁸⁾ 영창방은 만물을 싹트게 만드는 봄기운을 실은 바람이 들어오는 통로였던 것인데, 음의 극성점인 정북 冬至에서 발아한 ‘양’이 ‘음’의 그늘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창성하는 전환점에 해당하였다.

봉향방은 이규보의 초당이 城東 봉향리에 위치한 데에서³⁹⁾ 도성의 동쪽임을 알 수 있는데, ‘奉香’에서 제사와 관련된 지역임을 시사받는다. 제사와 관련된 곳으로 大廟가 동북~동쪽에, 영통사와 풍사단이 동북쪽에 자리잡았다. 선종 10년에 선대의 제사를 위한 奉先庫를 순천관으로 가는 관도의 북쪽에 자리잡은 廣仁館에 설치한 것⁴⁰⁾도 이러한 입지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다. 봉향방은 특히 종묘

35) 대묘의 위치에 대해서는 고유섭, 앞의 책, 부록 지도 참조

36) 선종 때 雙明齋가 靈昌里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 수 있다. 『拙叢千百』 권1 海東後耆老會序. 『고려사』 권56 지리지 2 왕경개성부 및 『고려사』 권83 병지 3 위숙군에는 ‘靈昌門’으로, 『고려사』 권63 吉禮小祀 雨師風師雷神靈星에는 ‘승昌門’으로 나타나는 영창문의 용례도 참고된다.

37) 『고려사』 세가 앞 부분 「高麗世系」, 『고려사』 권56 지리지 1 왕경개성부 임강현·송림현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2 장단도호부 불우 영통사·홍성사 참조. 영통사에는 세조·태조·인종의 진영이 모셔져 있었다. 『고려사』 권 19 명종 2년 3월 이곳에 태조 왕건과 부친 용건(세조)의 영정이 모셔진 것은 왕실의 발원지였기 때문이고 인종의 영정이 모셔진 것은 그의 원당이었기 때문이다.

38) 『고려사』 권63 예지 5 吉禮小祀 雨師·風師·雷神·靈星에 따르면 국성 나성 동북 승昌門 밖에 風師壇이 마련되어 입춘 후 丑日에 제사가 지내졌다.

39) 『동국이상국집』 권23 止止軒記

40) 『고려사』 권77 백관지 2 諸司都監各色 奉先庫, 『고려도경』 권16 관부 府庫. 봉선고에는 미곡, 제기, 牲牢 등이 보관되었다

인 대묘와 관련이 깊었다. 『주역』 震 괘에, “震驚百里 不喪匕鬯”이라는 구절이 있다. 천둥벼락이 쳐 백리까지 놀라게 해도 종묘제사에서 ‘匕鬯’을 하면 喪失에 이르지 않는다는 뜻이다. ‘匕’는 숟가락을, ‘鬯’은 신에게 올리는 香酒인 鬱鬯酒를 가리킨다.⁴¹⁾ 또한 선조를 높여 하늘에 짝하는 제사에서 제물의 香이 올라가면 上帝가 喜悅하였다.⁴²⁾ 봉향방의 ‘奉香’은 대묘의 제사에 향기로운 술과 제물을 올린다는 의미를 지녔으니, 이 방의 위치는 대묘를 향하는 주변으로 안정방과 영창방 사이가 될 것이다.

양제방의 구역은 물가의 제방에 버들을 심었다는 ‘楊堤’에서 시사받는다. 부흥산 방면에서 내려오는 물이 선죽교 방면으로 향하는 제방에 버들을 심고 그 주변 일대를 양제방이라 했을 것이다. 버들은 동쪽 昬을 상징하니⁴³⁾ 양제방은 동부 구역의 명칭으로 어울린다. 송령방의 ‘松令’은 소나무처럼 장수하기를 기원하는 뜻이 담기거나 소나무의 좋은 점을 가리키지 않았나 싶다. 전자라면 ‘松令’은 ‘松齡’ 내지 ‘松靈’의 약자로서 君세고 늘 푸른 솔처럼 王실과 王조가 安寧하고 영원하기를 기원하는 의미가 담겼다고 여겨지는데⁴⁴⁾ 이는 송령방이 대묘를 향한 데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사당이 소나무로 건축되었다는 점⁴⁵⁾도 그러한 면을 뒷받침한다. 후자라면 ‘松令’은 사람에게 유익한 松子, 松脂(松香), 松炷(松燭) 등⁴⁶⁾을 의미했다고 여겨진다. 솔방울인 송자는 ‘松仁’이라고도 칭해지니 동쪽 방위와 어울린다. ‘송연’은 먹을 만드는 주요 재료인데 먹을 제조했던 사원으로 여겨지

41) ‘鬯’은 黍에 鬱金香을 섞은 香酒로 ‘鬱鬯’이라고도 한다. 商務印書館 『辭源』 鬯部 鬯·鬱·鬱金香·鬱鬯 참조. 『주례』 春官에는 鬱人和 鬯人이 있었다

42) “印盛于豆 于豆于登 其香始升 上帝居歆…”(『시경』 大雅 生民)과 그 『集傳』.

43) 『시경』 陳風 東門之楊의 “東門之楊 其葉冱冱 昏以爲期 明星煌煌, 小雅 出車의 “昔我往矣 楊柳依依 今我來思 雨雪霏霏”라는 구절이 참고된다.

44) 松齡은 솔이 겨울에도 시들지 않고 長久함으로 인해 堅貞함에 비유해 壽考(長壽)를 기원하는 데 사용되었다. 商務印書館, 『辭源』 木部 松·松栢之壽는 壽가 松栢과 같음이니 長命을 비유한다. 中國文化大學出版部, 『中文大辭典』 木部 松. 『시경』 小雅 편의 天保에 “如月之恆 如日之升 如南山之壽 不騫不崩 如松柏之茂 無不爾或承”이라는 구절은 솔의 지속성을 잘 나타냈다. 소나무의 이러한 면모는 그것이 神靈함을 지닌 神木이었음을 말해준다.

45) “徂來之松 新甫之栢 是斷是度 是尋是尺 松栢有寫 路寢孔碩 新廟奕奕”(『시경』 魯頌 閟宮, “陟彼景山 松栢丸丸 是斷是遷 方斲是虔 松栢有榑 旅楹有閑 寢成孔安”(『시경』 商頌 殷武

46) 中國文化大學出版部, 『中文大辭典』 木部 松

는 광덕산 墨寺⁴⁷⁾도 송령방과 어떤 관련을 맺었을 가능성이 있다. 송령방은 양제방과 안정방 사이 일대가 해당될 것이다.

홍인방은 홍인문 주변에 위치하였음을 여러 연구자들이 지적하였다. 창령방의 ‘倉’은 歲星 즉 木星을 의미하는 ‘倉靈’⁴⁸⁾을 가리킨다고 여겨진다. 목성은 정동 내지 동남을 가리킨다. 창령방의 구역은 송령방의 남쪽, 홍인방의 서쪽 주변 일대라고 여겨진다. ‘木’을 상징하는 창령방과 ‘仁’을 상징하는 홍인방은 서로 호응하며 동쪽 봄철을 상징한다.

이상의 고찰을 바탕으로 동부 7방의 지리지 ‘왕경개성부’조 기재 원리를 살펴보자. 정동으로 동쪽 끝의 중심에 자리잡고 대묘로 가는 문인 안정문을 낀 ①안정방이 중요하므로 맨 앞에 기재하였다. 그 다음 안정방의 북쪽으로 ②봉향방→③영창방을 기재하였다. 그 다음 영창방에서 남쪽으로 내려와 ④송령방을 기재하고, 송령방에서 서쪽으로 ⑤양제방을 기재하고, 양제방에서 동쪽으로 ⑥창령방을 기재하였다. 그리고 창령방에서 동쪽으로 ⑦홍인방을 기재하여 끝을 맺었다. 그리하여 처음에 기재한 안정방과 마지막에 기재한 홍인방이 송인문 일대를 사이에 두고 만나게 되는 구조였다.

동북 입춘에 해당하는 영창방, 동쪽 봄을 상징하는 홍인방·창령방 등의 존재는 여러 坊들이 방향에 따라 四時 12개월 내지 음양오행과 밀접하게 짜여졌음을 시사한다. 동부 7방을 사시의 순환으로 배열하면, 영창방이 초봄 음력 正月(寅月)에, 봉향방이 초봄~仲春에, 안정방과 홍인방은 물론 송령방·창령방·양제방이 仲春 2월(卯月)에 배정될 수 있다.

남부는 방이 5개였다. 덕산방은 德岩峯 주변에 해당되는데 덕산문을 끼고 있었을 것이다. 덕풍방은 덕풍문과 관련되는데 장패문 수문으로 들어가는 물의 위와 아래 주변에 해당한다. 덕수방은 회빈문을 나서면 문중 때 홍왕사가 들어서는 德水縣이 전개되는 점⁴⁹⁾, 정남에 자리잡은 데다가 ‘禮’를 함축한 정남의 會賓門을

47) 廣德山 목사는 神孝寺라고도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 개성부 상 광덕산은 府의 동쪽 5리에 있었으며, 여기에 神巖이 있었다. 광덕산의 위치는 부 동쪽 7리의 부흥산과 비교하면 그 위치를 대략 짐작할 수 있다. 『중경지』 권3 산천 참조. 고유섭은 앞의 책 지도에서 神巖寺를 목청전의 북쪽에 비정하였는데 목사의 위치 추정에도움이 된다. 송인문 안의 목청전은 이방원에게 쫓겨난 이성계가 머물렀던 덕수궁의 후신이다.

48) 商務印書館, 『辭源』 人部 ‘倉’.

끼고 있어 강한 ‘火’의 기운을 ‘水’로 누를 필요성이 있는 점⁵⁰⁾ 등이 고려되어 작명되었을 것이다. 이는 고려가 水德을 중시한 점과 관련을 맺는다.⁵¹⁾ 덕수방, 덕풍방, 덕산방은 덕풍방을 가운데 두고 산과 수가 호응하는 구조이며, 또한 ‘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상호작용하는데, ‘禮’를 상징해 남쪽과 일정한 연관을 지닌 ‘履’괘가 ‘德의 基’이고, 남동에 해당하는 ‘巽’괘가 ‘德의 制’라는 점⁵²⁾과 관계되리라 본다.

안신방은 동부에 해당하는 城東의 奉香里에 살던 이규보가 남부에 해당하는 城南의 安申里 塞洞으로 이사온 데에서⁵³⁾ 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이규보의 안신리 집은 앵계 근처에 있었다.⁵⁴⁾ 이를 통해 안신리를 포함한 안신방은 앵계가 발원하고 흘러가는 용수산의 서쪽 기슭 주변에 해당하며 앵계문과 관련을 맺는다. 남부의 서쪽 끝에 해당하는 안신방은 그 북쪽의 중부 앵계방과 근접해 있었다. 이는 기흥수의 앵계리 退食齋가 이규보의 집과 가까워 이규보가 그곳을 자주 방문했다는 데에서 알 수 있다.⁵⁵⁾ 雨師 및 雷神의 제단이 국성(나성) 안의 西南月山에 마련되어 立夏 후 ‘申日’에 제사가 행해졌는데 이 제사가 행해진 곳이 안신방으로 여겨지며 그 명칭이 이로 인해 비롯되지 않았나 싶다.⁵⁶⁾

49) 덕수현은 고구려 때 德勿縣이었다가 신라 경덕왕 때 덕수현으로 개칭되었는데, 문종 때 흥왕사가 이곳에 창건되면서 縣治가 楊川으로 옮겨졌다. 『고려사』 권56 지리지 1 왕경개성부 덕수현.

50) 정남에 자리잡은 덕수방과 會賓門은 오행으로 ‘火’이며 오상으로 ‘禮’이다. 회빈문의 ‘會賓’이라는 명칭도 빈객과 회합한다는 뜻으로 보건대 오상의 ‘禮’와 관련해 지어졌을 것이다.

51) 수덕 중시는, 서경은 水德이 순조로운 곳이고 고려 地脉의 근본이라 大業을 만대까지 유지할 땅이므로 자주 행차해 머물러야 한다는 왕건의 유훈에 잘 드러난다. 『고려사』 권2 태조 26년 4월조 훈요 중 다섯째 참조. 고려인들은 자신들이 오행 중 ‘水’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인식하였던 것 같다.

52) 『주역』 「繫辭下傳」. ‘反身修德’하여 憂患에 처하는 9괘에 대해 “履 德之基也 謙 德之柄也 復 德之本也 恒 德之固也 損 德之修也 益 德之裕也 困 德之辨也 井 德之地也 巽 德之制也”라 언급되어 있다.

53) 『동국이상국집』 권23 止軒記, 권24 天開洞記. 이규보가 봉향리에서 안신리로 이사한 시기는 신종 5년(1202)이었다.

54) 『동국이상국집』 권3 「鰲溪草堂偶題」, 권5 「卜居鰲溪…」.

55) 『동국이상국집』 권2 「奇尙書退食齋八詠」, 권13 「奇平章挽詞」. 앵계리는 중부 앵계방에 속한다.

安興坊은 안신방과 짝을 이루어 안신방과 덕수방 사이에 위치하였다고 여겨진다. 안흥방과 안신방의 경계는 용수산 동쪽의 泰安門 주변으로 보이는데, 안흥방의 명칭은 태안문과 어울려 서로 관련을 맺는다.⁵⁷⁾ 『시경』 「小雅」편의 ‘斯干’에, “乃安斯寢 乃寢乃興” 하여 꿈을 접치니 길몽인데 아들 낳는 꿈 꿈과 딸 낳는 뱀꿈이라 되어 있다. 안흥방은 그 명칭이 이에서 유래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 남쪽 나성 밖에 꿈과 관련된 熊川과 일정한 관련이 있었을 것이다. 안흥방이 남쪽에 배치되고 웅천과 호응한 점은 음보다 양을, 딸보다 아들을 중시하는 음양 사상의 영향이라 하겠다.

이상에서 언급한 남부 5방의 내용을 바탕으로 ‘왕경개성부 조에 기재된 원리를 따져보자. 하늘에 제사하는 원구단으로 나가는 통로로서⁵⁸⁾ 정남문인 회빈문을 끼고 남부 방들 중의 중심에 자리잡은 ①덕수방을 처음으로 기재하였다. 그 다음에 덕수방을 기준으로 동쪽의 ②덕풍방과 서쪽의 ③안흥방을 차례대로 기재하였다. 그 다음에 덕수방을 기준으로 동쪽 바깥쪽의 ④덕산방과 서쪽 바깥쪽의 ⑤안신방을 기재하였다. 이것들을 사시의 순환에 따라 배열하면 덕산방은 음력 3월(辰月)의 늦봄, 덕풍방은 4월(巳月)⁵⁹⁾의 초여름, 덕수방과 그 다음의 안흥방은 5월(午月)의 한여름, 안신방은 6월(未月)의 늦여름에 해당한다.

서부는 방이 5개였다. 건복문과 관련되는 건복방은 ‘乾’이 서북에 해당하므로⁶⁰⁾ 광명사, 일월사를 포함하는 황성의 서북쪽 송악산 기슭으로 여겨진다. 문중이 京城 서북을 순행하여 修築의 상태를 살피고 일월사의 西山에서 주연을 베풀

56) 雨師와 雷神에 대해서는 『고려사』 권63 예지 5 吉禮小祀 雨師·風師·雷神·靈星 참조 서남은 未, 坤, 申에 해당하지만 安申坊은 未 정도의 방위이다.

57) 保安의 창고를 安興倉이라 한다. 『고려사』 권79 식화지 2 조운 蘇秦縣 앞 바다를 安興梁이라 하며 그 부근에는 安興亭이 지어졌다. 소태현은 충렬왕 때 출세한 환관 이대순의 고향이라 知泰安郡事로 승격된다. 『고려사』 권56 지리지 1 양광도 정해현·소태현, 『고려사』 권9 문종 31년 8월, 『고려사』 권16 인종 12년 7월 여기서 保安 蘇秦 泰安이 安興과 어울리는 낱말임을 알 수 있다.

58) 원구는 회빈문 밖에 있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 5 개성부 하 고적

59) 『고려도경』 권3 國城에서, 동남문은 시내가 흘러 ‘巳方’에 이르러 衆水가 모이는 곳이라고 장패문을 소개하였는데, 이 문은 남부 소속이므로 남동문으로 표현해야 적합하다. 이는 장패문과 그 수구, 덕풍문을 낀 덕풍방이 ‘巳方’ 내지 ‘巳月’에 속함을 알려준다.

60) 『고려도경』 권3 形勢

일⁶¹⁾도 일월사 지역이 경성의 서북 방위로 인식되었음을 알려준다. 乾福坊의 명칭은 송악산 서쪽에 위치한 福靈寺 및 그 위의 曉星窟과 관련해 지어졌지 않았나 싶다. 복령사는 신라 때 지어진 절로 천축국에서 왔다는 불상 1천개가 모셔져 있었다.⁶²⁾ 훗날 도찰현이라 불리는 고개의 서쪽에 위치한 이 절은 태조 왕건의 현릉으로 가는 길목에 자리잡았는데, 태조의 명복을 빌고 현릉을 보호하는 절로 이용되지 않았나 싶다.

효성굴의 曉星은 셋별 즉 金星이다. ‘乾’은 ‘金’에 해당하므로⁶³⁾ 효성굴 또한 건복방과 상호작용하는 존재였다고 보여진다. 김극기는 복령사에 대해 ‘大玄鄉’, ‘虛白堂’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박은은 神人이 진리인 大隗를 찾아 헤매는 『장자』 「徐無鬼」편을 인용하면서 신선세계인 福地라 하였다.⁶⁴⁾ 『장자』에는 이 신인이 黃帝로 표기되어 있는데 도교에서 숭배하는 존재이다. 복령사는 금성이 아침을 여는 신선세계였던 것이며 그러한 기운을 받아들이는 공간이 건복방이었던 것이다. 송악산의 산세 자체가 乾亥의 방향으로 내려왔으므로 八仙이 머무는 鵠嶺의 기운도 건복방을 통해 황성으로 전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⁶⁵⁾

鎮安坊과 香川坊은 서남쪽 ‘坤’의 방위에 위치하였다 鎮安坊은 土星을 가리키는 鎮星(填星)과 관련되리라 여겨진다⁶⁶⁾ ‘土’는 『예기』 권6 月令에 따르면 중앙을 가리키지만 오행의 순환상 서남쪽에 배정되기도 하니,⁶⁷⁾ 진안방은 光德門을

61) 『고려사』 권9 문종 31년 3월.

62)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 개성부 상 불우 복령사

63) 『고려도경』 권3 形勢

64)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 개성부 상 불우 복령사

65) 송악의 산세에 대해서는 『고려도경』 권3 形勢 팔선에 대해서는 『고려사』 세가 앞의 「高麗世系」 참조. 곡령은 『신증동국여지승람』 개성부 상에 따르면 송악산이지만 규장각 소장 18세기 지도 「松都」에는 송악산 서쪽에 표시되어 있다. ‘鵠’도 신선과 관련된 새임에 유의해야 한다.

66) 『사기』 권27 天官書 제5 填星 부분과 그 「索隱」 참조. 이에 따르면 填星은 中央土로 季夏를 주관하며, 黃帝로서 主德한다

67) 「월령」에 따르면 未月 즉 6월은 火와 金의 사이에 1년의 중간에 자리잡은 이유로 인해 ‘中央土’를 未月 다음에 붙여 오행의 차례를 이루도록 한다 이는 오행 相生의 원리를 따른 것인데 팔괘 중 坤方에 해당하므로 ‘坤土’라 한다. 坎方의 水 다음에 震方의 木 순으로 상생하지만, 그 사이인 艮方에 土를 설정해 土克水, 木克土 하도록 하는데 이를 ‘艮土’라 한다. 『주역』(보경문화사) 說卦傳 문왕의 팔괘에 대한 세주 중 ‘雲峯胡氏曰」 참조 동

끼고 서남쪽 주변에 해당하리라 여겨진다. ‘土’는 월령에 따르면 그 맛이 ‘甘’하고 그 냄새가 ‘香’하다고 되어 있으니 향천방도 ‘토’의 방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향천방의 향천은 용수산 기슭에서 十川橋 쪽으로 흐르는 물이거나, 선암문 방면으로 흐르는 물이거나, 안신방의 月山에서 雨師와 雷神에게 제사지낸 일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⁶⁸⁾ 진안방과 향천방은 같은 서남이라 둘의 위치를 분리하기 어려운데 ‘토’를 가지적으로 드러낸 진안방을 남부 안신방 다음에, 향천방은 진안방의 북쪽에 배치하고자 한다.

五正坊은 선의문이 오정문으로 불리게 된다는 사실에서 선의문 안의 주변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五正’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正西의 이 방위가 계절상 仲秋에 해당됨에서 어느 정도 유추된다. 우선 天地와 四時를 상징한 『주례』 六典 가운데 다섯 번째 秋官(刑典)과 관련되지 않나 싶다. 刑官인 추관이 五刑으로 만민을 규찰하기에 더욱 그렇다.⁶⁹⁾ 또한 ‘오정’은 『예기』 권6 月令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 음력 8월은 酉月로 仲秋의 月인데 ‘神秋의 月’로 표기되어 있다. 이 달에는 宰視에게 명해 犧牲을 循行하여 ‘視’, ‘案’, ‘瞻’, ‘察’, ‘量’ 한 바의 五者가 법도에 맞으면 上帝가 흠향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五正’과 연결될 개연성이 있는 것이다. 또한 ‘오정’은 가을에 五穀이 바르게 무르익어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기를 기원하는 뜻도 담고 있지 않나 싶다.

森松坊은 오공산 주변으로 여겨지는데 소나무가 우거지거나 그와 어떤 연관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시경』에 上帝가 산을 살펴보고 ‘松栢斯兌 하니 나라와 그

쪽과 동남은 ‘木’에, 남쪽은 ‘火’에, 서남은 ‘土’에, 서쪽과 서북은 ‘金’에, 북쪽은 ‘水’에 동북은 土에 해당한다. 최창조, 앞의 책, 162~164쪽 참조.

- 68) 용수산에서 내려오는 물은 오공산에서 내려오는 물과 十川橋에서 합류해 양계를 이룬다. 『중경지』 권3 산천 규장각 소장의 18세기 지도인 「松都」에 나성의 남서쪽을 관통하는 도로 동쪽 인근을 통과하는 물이 그려져 있는데 대략 선암문 주변에 해당한다. 용수산의 서쪽 봉우리로 보이는 月山에서 발원한 물이 서부의 구역으로 흘러내려 ‘香川’이라 불리지 않았을까. 선암문의 ‘仙巖’이 月山과 관련될 가능성도 있다.
- 69) 『주례』는 天官冢宰第一(治典), 地官司徒第二(教典), 春官宗伯第三(禮典), 夏官司馬第四(政典), 秋官司寇第五(刑典), 冬官考工記第六(事典)으로 구성되어 있다. 五刑은 野刑, 軍刑, 鄉刑, 官刑, 國刑이다. 한편 가을(금)은 목(인), 화(예), 토(신), 금(의), 수(지) 五行(五常)의 순환상 네 번째에 해당하지만, 수를 맨 앞에 두면 다섯 번째에 해당해 ‘五正’이 오행 오상의 순환과 관련될 개연성도 있다. 오행(오상)이 제대로 순환해야 가을에 좋은 수확을 거둘 수 있는 법이다.

담당자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⁷⁰⁾ 允는 통함과 正西의 의미를 가지니 松은 정서쪽 오공산과 어울린다. 삼송방이 서부의 처음에 기재된 것은 사직단같은 중요 시설⁷¹⁾이 오공산 기슭에 자리잡아 그것이 삼송방과 관련을 맺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松은 제사에서 신위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⁷²⁾ 그 무성함이 형제 사이가 좋음을 나타냈으며⁷³⁾, 또한 앞에서 살펴본 대로 늘 푸르러 굳셈과 장수함을 상징하였다. 소나무는 사람들, 특히 왕족이 안녕 화복 장수하여 왕실과 국가가 영원하기를 상징하는 神木이었다고 하겠다.

사직단은 동쪽의 대묘에 대하여 서쪽에 설치되는 것이 원칙이었다.⁷⁴⁾ 고려는 성종 10년 윤2월에 사직을 처음 설립하고 현종 5년 7월에 강감찬의 요청으로 사직단을 수리하지만 그 위치는 미상이다. 문종 6년 2월에 사직단을 황성 안의 서쪽에 신축하였다.⁷⁵⁾ 문종 6년 이전에는 황성 안의 서쪽에 있었을 가능성, 황성 밖의 서쪽에 있었을 가능성, 황성 밖의 서남쪽에 있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모두 오공산 기슭이다. 오공산 서쪽 기슭이 고유섭의 지도에 사직동으로 표시된 것도 사직과 오공산의 밀접한 관계를 시사한다. 삼송방은 오정방과 더불어 正西, 仲秋에 해당한다. 오정방에서 잘 살핀 희생과 잘 수확한 오곡을 가지고 풍성한 수확에 대해 사직에 보답하는 제사를 삼송방 내지 오공산 기슭에서 행하

70) “帝省其山 柞棫斯拔 松栢斯兌 帝作邦作對”(『시경』 大雅 皇矣).

71) 근래까지 남아 있는 사직단 터는 고유섭의 앞의 책 부록 지도에 따르면 선의문 안의 북쪽 언저리에 자리잡아 삼송방과 오정방 어느 쪽에 속하는지 애매하다. 이 사직단이 고려 전성기의 것이라 장담할 수는 없으며, 고을 단위에도 설립되기에 조선시대 것일 수도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5 개성부 하 고적에는 사직단 옛 터가 불은사 西洞에 있다고 되어 있다. 불은사는 옛 터가 태평관 북쪽 비슬산(유암산)에 있다고 한다. 여지승람 권4 개성부 상 불우. 조선중기 여지승람에 기재된 사직단의 위치는 근래까지 남아 있는 사직단과 달리 유암산 서쪽 삼송방에 있었던 듯 보인다. 태조의 원당으로 연등회를 개최하는 불은사가 삼송방과 관련을 맺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광종은 2년에 불은사를城南에 창건하였는데(『고려사』 권2), 황성 남쪽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

72) 사직 제사에서 중국 夏 시절에는 松을, 周 시절에는 栗을 이용해 신위를 만들었다. 『고려사』 권 59 예지 1 吉禮大祀 사직.

73) “秩秩斯干 幽幽南山 如竹苞矣 如松茂矣 兄及弟矣 式相好矣 無相猶矣”(『시경』 小雅 편 「斯干」). 또한 “豈伊異人 兄弟匪他 蔦與女蘿 施于松柏”(『시경』 小雅 頍弁)도 참고된다.

74) “小宗伯之職 掌建國之神位 右社稷 左宗廟”(『주례』 春官宗伯第三).

75) 『고려사』 권59 예지 1 吉禮大祀 사직. 현종 때 5부 방리가 완성되었다고 하지만 지리지 편찬자는 坊의 기재순서에서 문종 때 사직을 신축한 일까지 참작하였으리라 여겨진다.

는 구조가 아니었을까 싶다.⁷⁶⁾

이상 서부 5방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그에 대한 ‘왕경개성부 조 기재 원리를 살펴보자. 서동 대로가 통과하고 중국 사절이 왕래하는 선의문의 안에 자리잡은 오정방이 가장 앞에 기재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①삼송방이 가장 앞에 기재되었다. 이는 삼송방 안이든 그와 연결된 곳이든 사직같은 중요 시설이 자리잡았기 때문이라 여겨졌다. 삼송방 다음에 남쪽 바로 밑의 ②오정방을 기재하고, 그 다음에는 삼송방의 북쪽 황성을 뛰어넘어 ③건복방을 기재하였다. 그 다음에는 남쪽 끝으로 내려와 ④진안방을 기재하였는데 이는 ‘곤’에 해당하는 진안방이 ‘간’에 해당하는 건복방과 호응하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그리고 진안방 북쪽으로 ⑤향천방을 기재해 마무리하였다. 사시의 순환 순서로 배열하면 진안방, 향천방, 오정방, 삼송방, 그리고 황성 너머 건복방 순이었다. 진안방과 향천방은 안신방을 이어 음력 6월(未月)로 늦여름에 해당하지만 7월(申月)의 초가을도 포함하였다고 여겨진다.⁷⁷⁾ 오정방과 삼송방은 8월(酉月)로 仲秋에, 건복방은 9월(戌月)로 늦가을에 해당한다.

북부는 방이 10개였다. 기존 연구에서 흥국방 법왕방 왕륜방의 위치는 드러났다. 흥국방은 황성 밖 남동쪽으로 광화문에서 남쪽으로 향하는 도로에 있는 흥국사 주변에, 법왕방은 황성 안 동북쪽에 위치한 법왕사와 관련해 황성 밖 동북쪽에, 왕륜방은 법왕방의 북쪽 왕륜사 주변에 해당된다 또한 오관방의 위치는 오관산 방향에 자리잡았을 것이므로 북부의 북동쪽 끝 주변에 해당할 것이다. 사자암방은 영평문 길에 위치한 師子岩을 통해 영평문과 그리 멀지 않은 황성 밖 송악산 남쪽 기슭에 자리잡았음을 알 수 있다.

正元坊은, 『주역』 건괘 四德에서 봄철을 상징하는 ‘元’이 동쪽에 해당해 ‘正元’이 정동이 되기 때문에 황성의 정동으로 법왕방과 흥국방 사이에 위치했으리라 여겨진다. 사나방과 내천왕방은 각각 궁성 안에 위치한 사나내원과 내천왕사와

76) 사직 제사는 토지신 ‘社’와 오곡신 ‘稷’에 대한 ‘春祈秋報’의 의미를 지녔다. 봄에 밭갈고 씨뿌리면서 오곡이 잘 자라기를 사직에 제사해 기원하고, 가을에 결실을 수확하면서 사직에 제사해 그 은공에 보답하는 것이었다. 봄 제사는 음력 2월에, 가을 제사는 음력 8월에 행해졌다. 『고려사』 권59 예지 1 吉禮大祀 사직 성종과 문종 사례 참조.

77) 『주역』에 따르면 7월은 否塞의 ‘否’ 괘라 굳이 내세울 필요가 없었다

관련을 맺으므로 황성 밖 북쪽 일대로 여겨진다. 위상이 높은 사나내원⁷⁸⁾과 관련된 사나방이 송악산 정상과 황성의 정북문을 축으로 하는 일대에 자리잡고, 그 서쪽과 동쪽에 각각 사자암방과 내천왕방이 자리잡았을 것이다. 안화사와 안화문 주변에 방 하나가 들어설 여지가 남아 자운방을 이 일대에 배정하고 싶은데, 그리되면 자운사는 자은사와 다른 절이 된다.

사자암방은 지혜와 용맹을 상징하는 사자를 탄 문수보살과, 내천왕방은 동·서·남·북 4방을 수호하는 사천왕과 관련된다고 여겨진다.⁷⁹⁾ 사나방의 舍乃(舍那)는 그 연원의 가능성을 두 갈래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법신불인 毘盧遮那(毘盧舍那)에서 찾는 경우이다. 光明遍照의 비로자나는 화엄종의 본존불로 蓮華藏 세계의 주인이고, 밀교에서는 大日 여래로 숭배된다.⁸⁰⁾ 둘째, 선종 祖師인 舍那婆斯에서 찾는 경우이다. 개경 談禪法會에 앞서 지방에서 열리는 법회를 ‘叢林’이라고 하는데 舍那婆斯가 거주한 곳에서 생겨난 명칭이라고 한다.⁸¹⁾ 비로사나는 화엄종의 본존인 반면 사나내원은 선종 사찰이므로 사나내원 및 그와 관련된 사나방의 ‘사나’는 舍那婆斯와 연관이 있을 듯 싶기도 하다. 하지만 비로사나가 부처의 근원으로서 지니는 상징성으로 보면 황성 밖 정북의 자리에 어울릴 것 같기도

78) 舍那院은 궁성 안에 있어 舍那內院으로, 선종 사찰이라 舍那禪院으로 불려졌다. 진철대사 利嚴이 태조 때 사나내원에, 태조 및 정종과 인연을 맺은 정진대사 兢讓이 광종 때 舍那禪院에 주지하였으며, 태조·혜종·정종과 인연을 맺은 원종대사 璨幽가 광종 때 舍那院에 머물렀다. 사나원은 당대를 대표하는 고승이 거처한 것으로 보아 그 위상이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이지관 편 『교감역주 역대고승비문』(고려편 1), 광조사 진철대사 비문(21쪽) 및 봉암사 정진대사 비문(451 쪽), 앞의 책(고려편 2), 고달원 원종대사 비문(21 쪽) 참조

79) 문수, 사천왕에 대해서는 『불교상식백과』, 불교시대사(1993)의 문수보살·사천왕 참조

80) 舍那(遮那)로 약칭되는 毘盧舍那(毘盧遮那) 혹은 盧舍那에 대해서는 『한국불교대사전』 명문당(1982)의 비로사나·비로자나불·사나, 『불교상식백과』, 불교시대사(1993)의 비로자나불/대일여래 참조

81) 선종 승려들이 京師(개경)에서 열리는 談禪法會에 앞서 지방에서 법회를 열었는데 이를 ‘叢林’이라 하였다. ‘총림’은 梵語로 ‘盆陀婆那’인데 祖師 舍那婆斯가 거주한 곳으로 그로 인해 그렇게 이름지어졌다고 한다. 『동국이상국집』 권25 龍潭寺叢林會牒 인도 승려 舍那婆斯는 商那和修, 商諾迦縛娑, 舍那波私로도 표기되는데 麻衣(胎衣)로 번역되는 設諾迦衣(舍那衣, 商那衣, 商諾迦衣, 奢擲迦衣)만 입어서 생겨난 이름이라고 한다. 그는 阿難의 제자로 付法藏의 第三祖였다. 『한국불교대사전』, 명문당(1982), 舍那·商那·商那和修·商諾迦縛娑 참조

해 좀더 추구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⁸²⁾

이상의 고찰을 바탕으로 ‘왕경개성부’조에 등장하는 북부 10 개 방의 기재 원칙을 살펴보자. 乾德의 으뜸으로 만물의 시작을 의미하는 ‘元’의 기운이 충만한 정동의 ①정원방을 가장 앞에 기재하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 ②법왕방을, 남쪽으로 ③흥국방을 차례로 기재하였다. 그 다음에는 북쪽으로 쪽 올라가 북동쪽 끝의 ④오관방을, 그 다음에는 오관방 서쪽의 ⑤자운방을, 그 다음에는 자운방 남쪽의 ⑥왕륜방을, 그 다음에는 왕륜방 동쪽의 ⑦제상방을 기재하였다. 그 다음에는 황성 북쪽 밖의 밭어참성 지역으로 들어가 송악산 정상 남쪽 기슭에 ⑧사나방을, 그 다음에는 사나방 서쪽의 ⑨사자암방을, 그 다음에는 사나방 동쪽의 ⑩내천왕방을 기재하여 마무리하였다.

정원방·법왕방·흥국방이 한 묶음인데 4덕의 으뜸인 ‘元’이 깃든 정원방이 앞세워졌고, 오관방·자운방·왕륜방·제상방이 한 묶음인데 왕건 선대의 터전인 오관산과 호응하는 오관방이 앞세워졌고, 사나방·사자암방·내천왕방이 한 묶음인데 위상 높은 사나원과 관련된 사나방이 앞세워졌다. 사시 순환으로 배열하면 사자암방은 음력 10월(亥月)로 초겨울에, 사나방과 내천왕방은 11월(子月)로 한겨울에, 자운방·왕륜방·오관방은 12월(丑月)로 늦겨울에 해당시킬 수 있다. 이 다음에는 초봄의 동부 영창방으로 순환을 반복한다. 정원방, 법왕방, 흥국방은 북부 소속이지만 황성의 동쪽에 위치해 황성에 봄기운을 북돋우는 역할을 했다. 제상방은 오관방 묶음에 속하면서 정원방 묶음과의 연결고리로 기능하였다.

중부는 방이 8개였다. 남계방의 南溪는 앵계의 東流로 형성된 烏川⁸³⁾을 가리킨 것으로 판단되니 남계방은 오천 주변에 해당되리라 여겨진다. 왕위에 오른 후 敬德宮으로 되는 이방원의 楸洞 저택이 중부 남계방에 위치하였다.⁸⁴⁾ 경덕궁은 十字街와 오천을 통과해 회빈문 방향으로 진행하는 북남대로의 서쪽 인근에 자리잡

82) 화엄종만 비로사나를 모시고 선종은 다른 부처를 모신다는 법칙은 없으니, 선종사찰인 사나내원도 비로사나를 모셨을 가능성이 있다. 비로사나는 종파를 초월하는 성격이 강한 부처이기에 더욱 그렇다. 제석신앙 내지 신중신앙은 의례를 중시하는 화엄종과 밀접하지만, 궁성 안의 내제석원은 선종 사찰이라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사나’가 비로사나와 舍那婆斯 둘 모두를 의미했을 수도 있다.

83) 『중경지』 권3 山川

84) 『세종실록』 지리지 구도개성유후사 경덕궁.

있는데, 북남대로가 탁타교-장쾌문 방면의 길과 만나는 곳과 고려왕조 절의과들이 이성계가 실시한 과거를 거부하고 넘어 사라졌다는 ‘不朝峴’ 사이에 해당한다.⁸⁵⁾ 楸洞은 남계방의 남쪽 끝 언저리로 생각된다. 남계방은 대략 십자가·오천과 추동 사이 일대에 위치했지 않나 싶다.

앵계방은 용수산과 오공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합류해 동쪽으로 흐르는 앵계 주변으로 중부의 서쪽에, 유암방은 황성 밖 남쪽의 유암산 주변으로 중부의 서북쪽에 해당한다.⁸⁶⁾ 變羊坊은 ‘羊’에서 위치를 추정할 수 있지 않나 싶다. ‘양’은 십이지에서 ‘未’로 남서(서남)에 해당한다. 이로 보아 변양방은 중부의 남서쪽에 위치하였을 것이다. 성화방은 ‘星化’가 『서경』 「堯典」에서 남쪽 仲夏의 일로 언급한 ‘南訖(化)’와 ‘星火’에서⁸⁷⁾ 유래하였다고 추측되어 중부의 남쪽 중 남계방의 동쪽, 탁타교 주변에 배정하고 싶다.

광덕방은 광덕평 주변으로 판단된다. 나성 안의 여러 물은 廣德坪에서 만나 동쪽으로 흘러 보정문(장쾌문)을 빠져 나간다고 한다.⁸⁸⁾ 광화문 쪽에서 남류하는 白川과 앵계가 동류해 이루어진 烏川이 만나 흘러, 선죽교 쪽에서 남류하는 물과 만나는 지점이 광덕평에 해당하는 것이다.⁸⁹⁾ 그러니까 광덕방의 위치는 이 광덕평 일대로 보아야 한다.⁹⁰⁾ 이는 정중부의 아들 정균이 수창궁에서 100보가 되지

85) 고유섭, 앞의 책, 부록 지도. 이에 따르면 십자가의 남서쪽 근처, 오천의 남쪽 인근에 연복사(보제사)가 위치하였으니 역시 남계방에 속하였을 것이다. 不朝峴에 대해서는 『중경지』 권7 古蹟 참조

86) 앵계와 유암산에 대해서는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 개성부 상 산천조 앵계, 불우조 불은사, 『중경지』 권3 산천조 비슬산·앵계 참조. 앵계는 동쪽으로 흘러 오천을 이룬다

87) “申命羲叔 宅南交 平秩南訖 敬致 日永星火 以正仲夏 厥民因 鳥獸希革”(『서경』 虞書 堯典). 星火는 동방 蒼龍 7宿로 夏至 저녁 무렵의 中星이라 풀이되었는데, 『사기』 권27 천관서 5 東宮蒼龍의 「索隱」에 따르면 氏·房·心이다. 前問恭作은 앞의 논문 5 쪽 지도에서 성화방을 오천의 남쪽에 표시하였다. 稼穡의 별로 동남에 위치해 동남에서 제사받는 靈星(天田星)이 있다. 『辭源』 雨部 靈星. 영성과 성화방의 관련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고려 때 靈星壇에 立秋 후 辰日 제사하였다 『고려사』 권63 吉禮小祀 風師·雨師·雷神·靈星 참조.

88) 『중경지』 권7 고적편 「傳疑」. 광덕평은 광덕산과 관련이 없다

89) 이러한 여러 물의 흐름에 대해서는 『중경지』 권3 산천 참조

90) 박용운도 앞의 책 98쪽 지도에서는 광덕방을 이 지점에 표기하였다. 광덕평이라는 명칭이 광덕방에서 유래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않는 거리에 위치한 태후의 廣德里 별궁을 빼앗은 데에서도 알 수 있다.⁹¹⁾ 광덕방은 중부의 동쪽에 해당한다.

중부 8방 중에 남은 것은 흥원방과 흥도방인데 남은 곳인 중부의 북과 동북에 해당시킬 수 있다. 북쪽에 흥원방을, 동북쪽에 흥도방을 배치하는 경우, 북쪽에 흥도방을, 동북쪽에 흥원방을 배치하는 경우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 지 확실치 않다. 興元坊에 들어 있는 ‘元’은 『주역』 건괘에서 동쪽 봄철을 상징한다. 弘道坊의 ‘弘道’는 『논어』에서 유래한 듯한데 동쪽과 관련성이 깊다.⁹²⁾ ‘元’을 일으킨다는 ‘興元’이 담긴 흥원방을 중부의 북쪽에 두어 ‘元’이 부족한 북쪽을 裨補해 봄이 빨리 시작되도록 하고, 흥도방을 중부의 동북쪽에 두어 동부의 여러 방들과 호응하도록 한 것이 아닐까. 그리되면 흥원방은 북부의 흥국방과 호응하고, 十字街에서 광화문에 이르는 대로가 흥원방과 흥국방을 관통한다.⁹³⁾

이상의 고찰을 바탕으로 ‘왕경개성부’조 중부 8방의 기재 원리를 살펴보자. 개경의 중심을 흐르는 오천을 포함하는 ①남계방을 가장 먼저 기재하고, 그 다음에는 남계방 북쪽의 ②흥원방을, 그 다음에는 흥원방 동쪽의 ③흥도방을 기재하였다. 그 다음에는 서쪽의 ④앵계방을 기재하고, 그 다음에는 앵계방 북쪽의 ⑤유암방을, 그 다음에는 앵계방 남쪽의 ⑥변양방을 기재하였다. 그 다음에는 동쪽의 ⑦광덕방과 그 남쪽의 ⑧성화방을 차례로 기재하였다. 남계방과 앵계방과 광덕방이 각각 중심을 이루어 세 묶음으로 파악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고려가 水德을 중시한 데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중부 8坊들은 8 방위에 따라 순환하면서 오행

91) 『고려사』 권128 정중부전. 수창궁은 『중경지』 권4 궁전에 따르면 서소문(조선 내성) 안에 있었는데 십자가 서쪽 인근이다.

92) 공자는 “人能弘道 非道弘人”(『논어』 衛靈公 篇)이라 하였다. “朝聞道 夕死可矣”(『논어』 里仁 篇)라는 공자의 말에 나오는 ‘道’에 대해 주자는 사물 當然의 理라 풀이하였다. 『주역』 說卦傳에 따르면 성인이 ‘易’을 만들 때, 天의 道를 세워 陰陽, 地의 道를 세워 柔剛, 人의 道를 세워 仁義라 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道’는 사물 당연의 이치 내지 仁義라 정의할 수 있는데, 弘道를 언급한 공자 사상의 핵심은 ‘仁’이므로 弘道坊은 동쪽과 관련을 지닌다.

93) 광화문-십자가 대로는 그것을 따라 시전이 조성된 상업구역이었다. 이는 『고려사』 권21 희종 4년 7월조에, 大市 좌우의 長廊을 改營하였는데 광화문에서 十字街까지 기둥이 1,008개였다고 한 데에서 알 수 있다.

상 중앙 ‘土’로서 다른 4부의 방들을 조절하는 구조였다고 생각된다

5부의 구역을 정확히 밝혀내기는 어렵지만, 여러 방들의 배치를 바탕으로 대략 그려 보자. 도성의 서북쪽에 황성이 자리잡으면서 개경 도심이 밑으로 처져 중부가 아래쪽으로 쏠리는 현상과 서부가 좁아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북부는 남쪽 경계가 황성의 남동쪽 끝 언저리에서 자남산 선 이북이고, 동쪽 경계는 자남산에서 북소문(고려의 성도문)에 이르는 조선초기의 내성⁹⁴⁾과 대체로 일치한다고 여겨진다. 단, 황성 구역과 그 서북쪽 건복방 지역은 북부에서 제외된다. 서부는 동쪽 경계가 유암산 부근에서 선암문 선으로 여겨지며, 북쪽 끝은 황성을 제외하고 건너 뛰어 그 서북쪽을 포함한다.

동부는 서쪽 경계가 대략 성도문에서 자남산에 이르는 조선의 내성 선이고, 남쪽 경계는 자남산에서 덕산문 선으로 보인다. 십자가 오친 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중부는 북쪽 경계가 황성의 남동쪽 끝 언저리에서 자남산을 거쳐 선죽교 부근을 지나 형성되고, 서쪽 경계가 유암산 부근에서 내려와 남부의 안신방을 만나는 지점이고, 동쪽과 남쪽 경계는 탁타교 주변을 포함하여 남부와 만나는 선으로 추정된다. 남부는 덕산문에서 서쪽으로 동부 및 중부와 경계하고, 선암문에서 북쪽으로 서부 및 중부와 경계하면서 그 사이에 이루어진 지역으로 파악된다. 이상에서 언급한 개경 부·방의 위치를 지도에 표시한 것이 <부록> ‘개경 내성문과 부·방이다

IV. 맺음말

개경의 5部는 방위(방향)에 바탕한 四時의 순환과 음양오행설에 의거하여 구획되고 이름지어졌다. 35坊은 대개 음양오행이나 지형·시설물·사찰과 관련을 맺어 구획되고 이름지어졌는데, 고려 건국초기에 형성된 북부 방들은 절과 관련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35坊은 기본적으로 음양오행설에 기초하면서 주변의 지형 내지 시설물이 고려되어 구획되고 이름지어졌으며, 지형이나 시설물과 관련된 경우도 대개 음양오행의 틀 안에 속했다고 볼 수 있다.

94) 조선의 내성 모습은 전통철, 앞의 논문, 개성성도 참조

부와 방이 방위, 사시, 오행에 따라 구획되었다고 하지만 기계적으로 배치되지는 않았으니 진산인 송악산이 북서쪽에 위치하고 황성과 궁성이 그 남쪽 기슭에 자리잡은 데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또한 부와 방에 불교와 도교 신앙이 일정하게 구현되었으며, 풍수지리설도 음양오행 신앙에 녹아 반영되었다.

동부에서 영창방은 영통사와 연결되고 봄을 맞이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었다. 봉향방과 안정방은 대묘의 제사를 받든다는 의미가, 송령방은 대묘와 연결되어 왕실의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가 들어 있었다. 안정방·홍인방·송령방·창령방·양제방은 ‘仁’ 내지 ‘木’으로서 무르익은 봄에 해당하였다. 남부에서는 덕산방에서 늦봄을 보내고, 덕풍방에서 초여름을 맞이하고, 덕수방과 안흥방에서 ‘火’의 한여름을, 안신방에서 늦여름을 맞이하였는데, ‘德’으로써 물의 흐름을 조절하고 나아가 ‘火’의 기운을 제압하려 하였다.

서부에서 진안방과 향천방은 늦여름에서 초가을로 접어드는 곳인데 오행의 순환상 ‘土’를 설정하였다. 그 다음은 ‘金’으로 순환해 오정방과 삼송방에서 仲秋를 건복방에서 늦가을을 맞이하였다. 그 다음은 북부의 ‘水’로 순환해 사자암방에서 초겨울을, 사나방과 내천왕방에서 한겨울을, 자운방·왕륜방·오관방에서 늦겨울을 맞이하였다. 정원방·홍국방·법왕방은 북부에 속하였지만 황성의 동쪽에 위치해 ‘元’ 내지 봄의 기운을 황성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남계방 등의 중부는 자체적인 순환체계를 지니면서 중앙 ‘土’로서 다른 부들을 조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개경 부·방에서 오행의 순환을 대략적으로 언급하면, 木(仁)에 해당하는 동부 안정방·홍인방 등을 거치고, 火(禮)에 해당하는 남부 덕수방 등을 거치고, 土(信)에 해당하는 서부 진안방과 金(義)에 해당하는 서부 오정방 등을 거치고, 水(智)에 해당하는 북부 사나방 등에서 완성을 보는 구도였다. 물론 중부의 방들은 중앙 土(信)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처럼 개경 부·방의 편제에는 음양오행설과 계절의 순환 관념이 깊숙이 깔려 있었으니 고려인들은 음양오행설을 합리적인 원리로 신봉하여 개경의 도시계획에 적용하였던 것이다. 이를 현대과학의 입장에서 미신으로 몰아부치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오히려 자연의 원리에 순응한 고려인들의 생활 태도를 통해 현재의 우리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

<부록> 개경 나성문과 부·방

참고문헌

- 『高麗史』 서울: 아세아문화사, 1972.
- 『高麗史節要』 서울: 아세아문화사, 1972.
- 『동국이상국집』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67.
- 『高麗名賢集』 서울: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86.
- 『東文選』 서울: 태학사, 1975.
- 조선총독부중추원, 『世宗實錄地理志』 서울: 경문사, 1974.
- 『신증동국여지승람』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67.
- 朝鮮光文會, 『中京誌』 서울: 민속원, 1995.
- 『高麗圖經』 서울: 아세아문화사, 1972.
- 『周易』 서울: 보경문화사, 1988.
- 『書傳』 서울: 보경문화사, 1986.
- 『詩傳』 서울: 보경문화사, 1984.
- 『禮記』 서울: 보경문화사, 1984.
- 『辭源』 香港: 商務印書館, 1987.
- 前間恭作, 『開京宮殿簿』, 『朝鮮學報』 제6집, 1963.
- 高裕燮, 『松都의 古蹟』 서울: 열화당, 1977.
- 李丙燾, 『高麗時代의 研究』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0.
- 전룡철, 「고려의 수도 개성성에 대한 연구(1)(2)」 『역사과학』 2·3, 1980.
- 최창조, 『한국의 풍수사상』 서울: 민음사, 1984.
- 李智冠,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고려편 1·2) 서울: 가산문고, 1994·1995.
- 朴龍雲, 『고려시대 開京 연구』 서울: 일지사, 1996.
- 細野涉, 「高麗時代の開城—羅城城門の比定を中心とする復元試案」 『朝鮮學報』 제166집, 1998.
- 장지연, 「개경과 한양의 도성구성 비교」 『서울학연구』 15, 2000, 71 쪽
- 홍영의, 「고려전기 개경의 오부방리(五部坊里) 구획과 영역」 『역사와 현실』 제38호, 2000, 49·50 쪽
- 서성호, 「고려시기 개경의 시장과 주거」 『역사와 현실』 제38호, 2000.

주요어

개경, 부(部), 방(坊), 나성문, 방위, 계절, 음양오행, 오상